

예배순서

| | | |
|---------|--|---------|
| *경배와 찬양 | 임재 / 예수 좋은 내 친구 / 가장 높은 곳에서 / Born Again | 다같이 |
| 대표기도 | | 다같이 |
| *성경봉독 | 엎 2:8-9, 약 2:14-17 | 구교현 |
| 말씀 | 믿음과 행위 | 김상범 전도사 |
| 응답찬양 | 나로부터 시작되리 | 다같이 |
| *봉헌 | | 다같이 |
| *봉헌기도 | | 김상범 전도사 |
| 광고 및 환영 | | 안혜진 |
| *파송찬양 | 민족의 가슴마다 | 다같이 |
| *권면과 기도 | | 김상범 전도사 |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기도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집중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사랑하기보다
 정죄하기에 빨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 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정결케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또한, 그 순종을 통해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으시는 예배되기를 간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행위 (엎 2:8-9, 약 2:14-17)

8 여러분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16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다른 쪽을 간과하지 않는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생명에 관한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생명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남, 즉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는 거듭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믿음조차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전 12:3, 시편 139:13, 16) 결국, 구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고백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한 행위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자격없는 나를 위해 존귀한 희생을 감수하신 예수님을 깊이 느끼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아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입니다. 내 느낌과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변치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말씀에 기초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조용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확신의 단계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두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첫째, 은혜의 도구 (Means of Grace)**입니다. 말씀묵상, 기도, 예배, 성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긍휼의 행위 (Works of Mercy)**입니다. 선행, 이웃사랑과 같은 실천입니다.

비록 처음 예수를 고백했을 때는 특별한 느낌이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경건 생활을 노력하면, 예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음을 내적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구원은 순간적 역사이지만, 구원에 대한 내적 확신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심지어, 신비로운 체험을 하신 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묵상과 기도를 통해 얻어지게 됩니다.

확신으로 나아가는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웃의 기초적인 필요들을 채우려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할 때, 가장 큰 영적 유익은 사실 우리 자신이 받습니다. 우리가 선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 가운데 깊이 뿌리내립니다.

이와 같이, 행위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첫 단계인 칭의 (Justification)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행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다음 단계인 성화 (Sanctification)에서는 우리의 경건과 착한 행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 가는 데에는 믿음과 함께 행위도 분명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민감한 부분이어서, 때론 혼돈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와 관해 두 가지를 특별히 경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대적 율법주의**입니다.

말씀산책

이것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행위가 너무 중요해진 경우입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나의 행위 때문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됩니다. 나만큼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판단의 잣대로 바라봅니다. 현대적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한 번 받고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두번째, 은혜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에 힘써야 하는 경건의 삶과 선한 행실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구원의 문제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이런 신앙은 아무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깊은 맛을 느끼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과 행위를 함께 성숙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나누어 보세요.
2.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나의 믿음의 상태를 한 번 돌아보고 나누어 보세요.
3. 보다 균형잡힌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 내가 좀 더 노력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파송찬양

민족의가슴마다 (그리스도의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ZOOM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주시고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금요 기도회

매주 금요일 7시, 청년부 예배실 (매달 첫 주 제외)

목자/목녀 1일 영성 세미나

- 3월12(토) 오후 2시, 친교실
- 청년부 목자들도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1년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 2월 20일 (주) 12:30PM, 본당/온라인(ZOOM)

토요 무릎 기도회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본당
중보기도회(목요기도회) :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본당

PSALM

예배/모임

| | |
|-------------------|----------------|
| 주일청년예배 | 주일 1pm |
| 금요기도모임 | 금 7pm (매월첫주제외) |
| 정기리더모임 | 매월 첫주 금 7pm |
| 청년목장 | 주중 또는 예배후 |
| Good Morning 말씀산책 | 월-금 6:30am |
| 토요무릎기도회 | 토 6:30am |

제 50권 7호

FEB 13
2022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 |
|-------|-----|--------------------|
| 담당전도사 | 김상범 | cptksb3@gmail.com |
| 지도장로 | 김종환 | jybella@utexas.edu |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 | | |
|--------|-----|------------------------|
| 라이드 팀장 | 안혜진 | anhyejin0714@gmail.com |
| 새가족 팀장 | 하지수 | jisujeon2015@gmail.com |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